



20
21

Vol. 03

웹툰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웹툰

04
양적 분석

06
내용 분석

23
나가며

24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웹툰 내용 분석 보고서

서울YWCA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2018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웹툰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2020년 12월에는 “여성 혐오 없는 웹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웹툰 속 여성 혐오, 성차별 실태 및 플랫폼 환경에 대해 고찰했다. 나아가 창작자, 플랫폼, 웹툰 제공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웹툰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만화에서 드러나는 성평등, 성차별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웹툰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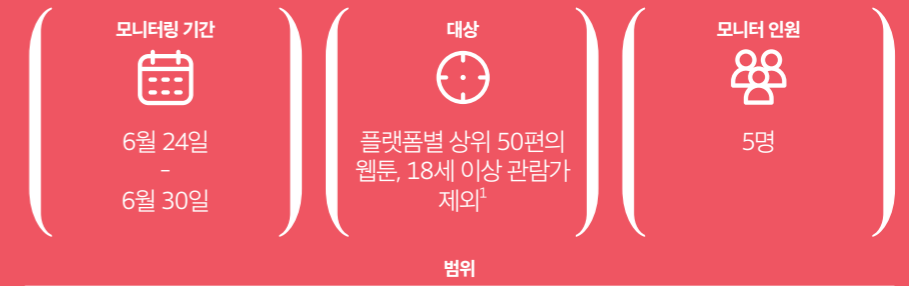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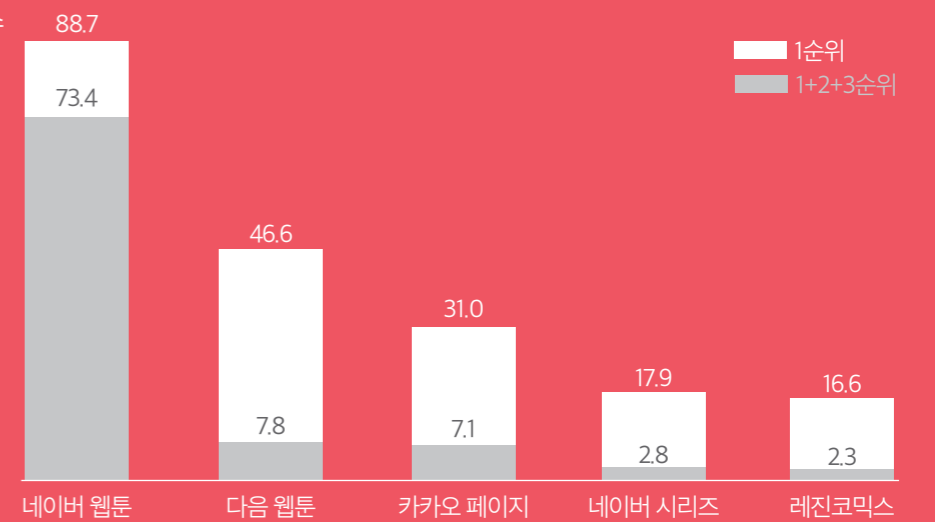


표1 _____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단위:건)

연번	장르	모니터링 회차 수
1	일상	60(6.1%)
2	판타지	180(18.2%)
3	액션(무협)	229(23.2%)
4	드라마	160(16.2%)
5	순정	260(26.3%)
6	감성	20(2.0%)
7	스포츠	20(2.0%)
8	소년	40(4.0%)
9	BL	20(2.0%)
합 계		989(100.0%)

표2 _____ 2020 만화산업백서 이용서비스 TOP5 (단위: %)



1. _____ <2020 만화산업백서>가 제시한 상위 5개 플랫폼의 영향력(이용비율)에 따름. 네이버(22편), 다음웹툰(14편), 카카오 페이지(7편, 요일별 1위), 네이버시리즈(4편), 레진코믹스(3편), 총 50편

[양적 분석]

1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989회차의 웹툰을 모니터링한 결과 18회차(0.7%)의 웹툰에서 7건의 성평등 사례가, 73회차(7.4%)의 웹툰에서 110건의 성차별 사례가 발견되었다. 성평등/성차별 사례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중복 모니터링을 허용한 결과이다. 성평등 사례로는 여성 캐릭터 능력과 주체성, 캐릭터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을 깨는 사례들이 있었다. 성차별 사례로는 성적 대상화(도구화)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110건의 성차별 사례 중 51건으로 46.3%에 해당한다. 2020년 웹툰 모니터링에서도 성적 대상화(도구화)의 사례가 가장 많았음을 고려할 때, 웹툰에서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재현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대상화 다음으로는 성차별의 의도를 가진 비하·차별 표현 사용이 20건, 젠더에 기반한 폭력 부각·강조 사례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3 ____ 성평등/성차별적 사례 수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7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냄	16
		성적 대상화(도구화)의 문제	51
		젠더에 기반한 폭력 부각·강조	17
		외모에 따른 차별의 내용을 포함	6
		성차별적 비하·차별 표현 사용	20
합계	7	합계	110

성차별적 멸시/모욕/위협 등을 위해 사용된 비하/차별표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X녀’ ‘면상 뺨은~’ ‘제집년’ 등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고자’ 등 남성 성 불능을 조롱하는 표현, ‘느금마’ ‘느금빠’ ‘니네 엄마 씨발아’ 등 부모를 비하하는 표현 등이 있었다.

표4 ____ 성차별적 비하/차별표현 수 (단위: 개)

비하/차별표현	개수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13
남성 성 불능 조롱	4
부모 비하 표현	2
여성을 성적으로 환원한 표현	1
합계	20

2 웹툰의 성차별성과 장르의 상관관계

성차별적 내용이 발견된 웹툰 회차는 액션(무협) 장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4 참조). 액션(무협) 장르의 성차별 유형으로는 성적 대상화가 4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표5 참조). 이는 2020년 웹툰 모니터링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부분이다. 2021년 8월 네이버가 제공하는 실시간 10-30대 실시간 인기 만화를 살펴보면 1-5위까지는 대부분 액션(무협) 장르 웹툰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20대 남성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액션 장르에서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더불어, 남성 주인공 간의 경쟁 구도를 강조하는 액션(무협) 장르에서 여성은 경쟁의 결과에 따른 상품으로 제시되거나, 경쟁 혹은 긴장을 유발하는 촉발자로, 여성의 미숙함이 남성 주인공의 위기 요인이 되는 등 비주체적이고 주변화 된 캐릭터로 그려졌다. 액션(무협) 장르의 웹툰에서 여성의 주변화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재현 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액션(무협) 장르 다음으로는 드라마, 순정 장르 순으로 성차별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드라마 장르에서도 여성을 향한 성적 대상화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표5 ____ 장르별 성차별 회차 수 (단위: 회차)

연번	장르	성차별 웹툰 회차 수
1	일상	3
2	액션(무협)	32
3	드라마	19
4	순정	13
5	스포츠	6
합 계		73

표6 ____ 성차별 유형과 웹툰 장르의 상관관계 (단위: 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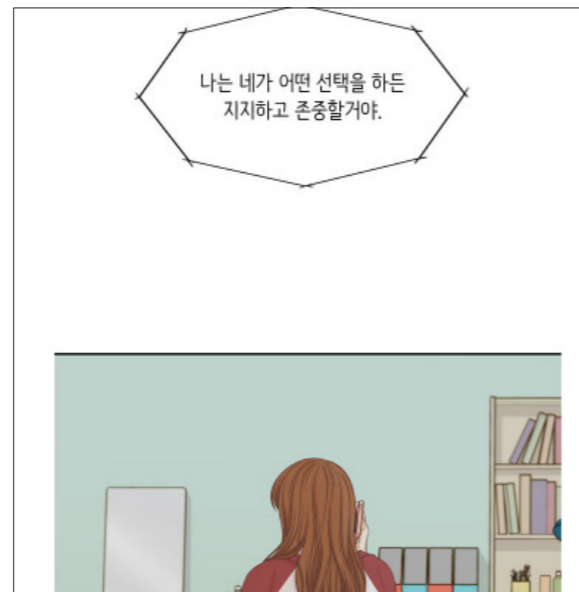
구분	젠더(성별) 고정관념 드러냄	성적 대상화 (도구화)	젠더에 기반한 폭력 부각/강조	외모 평가	비하/차별 표현 사용	합계
일상	0(0.0%)	3(100%)	0(0.0%)	0(0.0%)	0(0.0%)	3(100.0%)
액션(무협)	8(15.1%)	24(45.3%)	6(11.3%)	3(5.7%)	12(22.6%)	53(100.0%)
드라마	2(7.1%)	16(57.1%)	4(14.3%)	3(10.7%)	3(10.7%)	28(100.0%)
순정	6(37.5%)	2(12.5%)	7(43.7%)	0(0.0%)	1(6.3%)	16(100.0%)
스포츠	0(0.0%)	6(60%)	0(0.0%)	0(0.0%)	4(40%)	10(100.0%)
합계	16(14.5%)	51(46.4%)	17(15.4%)	6(5.4%)	20(18.2%)	110(100.0%)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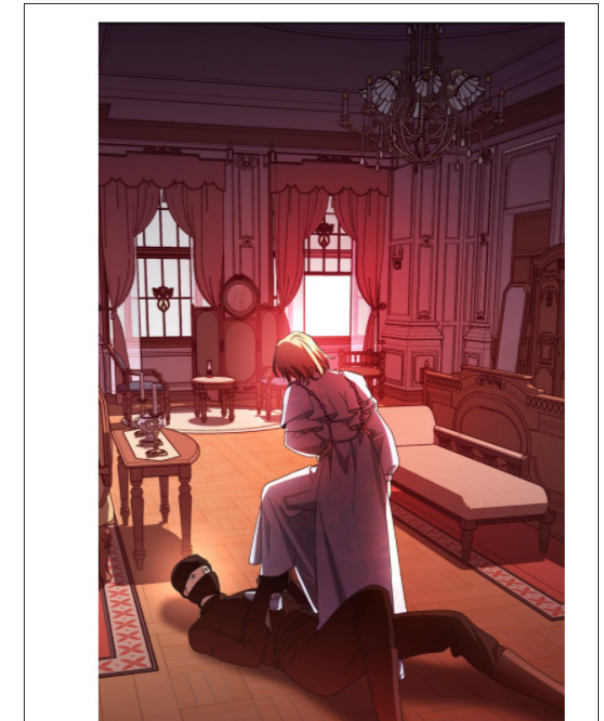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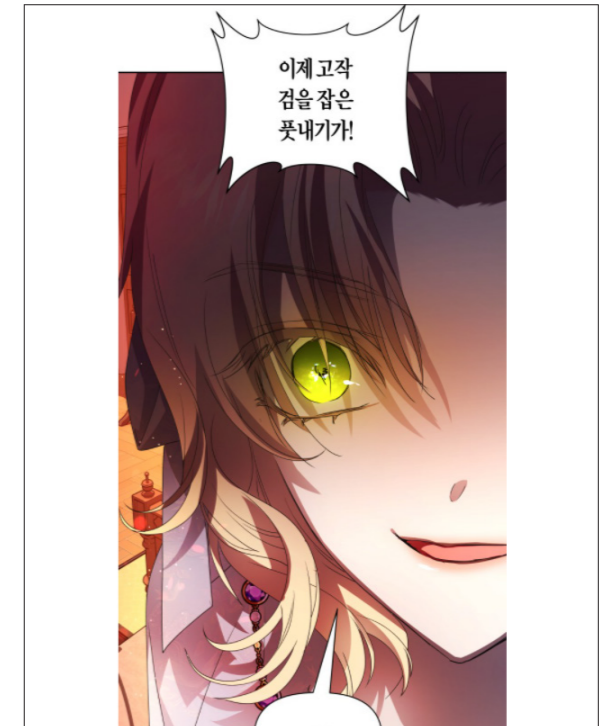
1 성평등적 웹툰 사례

웹툰 속 성평등 사례는 성차별 사례 대비 적었다.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를 극 전개를 위한 자극적인 요소로 활용하던 웹툰과 달리 피해자의 주체성을 부각하여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깨는 내용이 있었다. 남성중심적인 판타지물에서 수동적이고 연약한 존재로 묘사되었던 기존의 여성 묘사를 벗어나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지닌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재현한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웹툰명 /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드라마 / 전체이용가	소녀의 세계 5/2(53화), 5/9(54화)	<p>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된 오나리(여성)가 2차 피해의 우려로 공론화를 두려워할 때, 승하(남성)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피해자에게 무조건 정의로운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습은 피해자 주변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가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지지자원이 될 것이다. 해당 웹툰은 피해자의 모습을 위축되고, 수동적인 태도의 피해자 동념이 아닌 주체적 존재로 그려낸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하는 오나리의 모습을 통해 피해자다움의 인식을 깨기도 한다. 피해자의 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부조리한 현실과 왜곡된 사회의 시선이 정확하게 통찰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라는 주인공의 말은 피해자 스스로 선택과 판단력, 주체성을 보여준다.</p> <p>가해자 뿐 아니라 상황을 방관한 이에게도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이 폭력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의 근절의 중요함은 피해자의 권리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임을 잘 짚어내고 있다. 결국은 성평등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고 개선해나가는 움직임이 중요함을 보여준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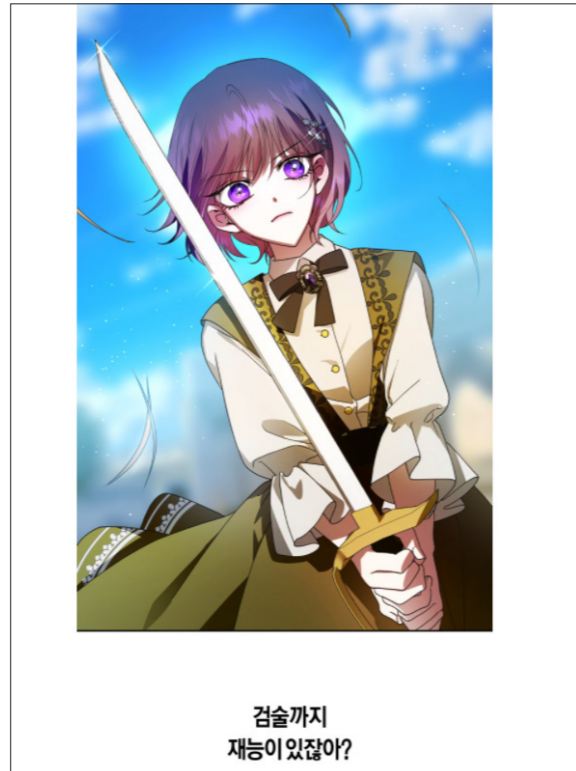
플랫폼 / 장르 / 연령	웹툰명 /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로맨스 / 15세 이용가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4/5(72화), 5/17(78화)	72화의 해당 장면에서 여성 주인공(메데이아)은 갑자기 습격을 한 자객과 싸우게 되지만 오히려 검술로 압도하고 그를 제압한다. 이러한 장면은 이 웹툰의 장르인 로맨스 판타지에서 주로 여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남자 캐릭터가 나와 그녀들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고정된 젠더관념을 재생산하는 서사와는 달리, 여성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게 단련하고 자주적인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평등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웹툰명 / 날짜(회차)

분석



이 웹툰의 장르인 로맨스 판타지 속 설정 상, '공녀'는 왕족과 결혼하기 위해 '신부수업'만 받으며 자라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여성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모르게 검술을 배워와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고(78화) 여성에게 주어지는 고정적인 성역할 대신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여성이다. 또한 이와 반대로 가정 폭력으로 여겨질 만큼 가족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세상물정 모르게 자라온 또 다른 여성 주인공(프시케) 역시 연이은 자객의 습격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단련하며 성장해 나가는 등, 두 여성 주인공이 서로의 안위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로맨스 판타지 웹툰에서 여성을 수동적이고 연약한 존재로 묘사해왔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네이버 판타지 / 15세 이용가

전지적 독자 시점
2/9(38화)
2/16(39화)
2/23(40화)
3/2(41화)
4/13(47화)

네이버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는 적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 무리의 조합은 기존의 판타지 만화 속 구성원이 남성 다수에 여성 히로인 한명(특히 여성의 역할은 공격력이 거의 없는 치료사로 묘사)으로 조합되었던 것과는 달리,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2명, 소년 1명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을 잘 반영했다. 특히 소년과 남성 주인공이 적을 무찌를 작전을 세우고 두 명의 여성 인물들이 일종의 '공격수'로 적을 무찌르는 장면은 각 인물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웹툰은 등장인물들을 단순히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인물들을 각 개인만의 능력치와 가치를 갖고 있는 주체적인 캐릭터로 표현한다. 39화에서는 소년 이 매우 무거워 강한 자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뇌신 토르의 물니르를 들어 올린다. 40-41화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나 창작물 속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캐릭터들이 남성과 연결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 인물과 연관된 강인한 인물로 묘사된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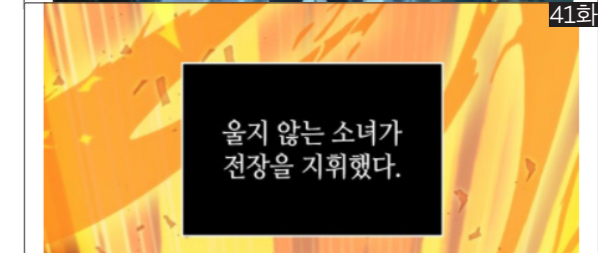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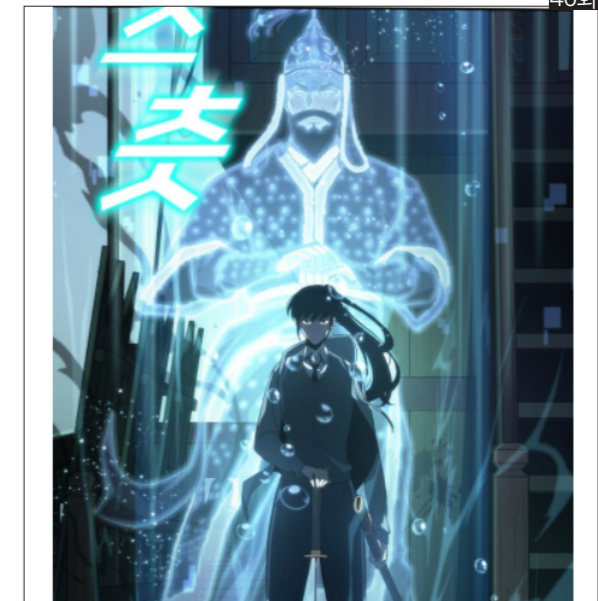
웹툰명 /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판타지 / 15세 이용가

전지적 독자 시점
2/9(38화)
2/16(39화)
2/23(40화)
3/2(41화)
4/13(4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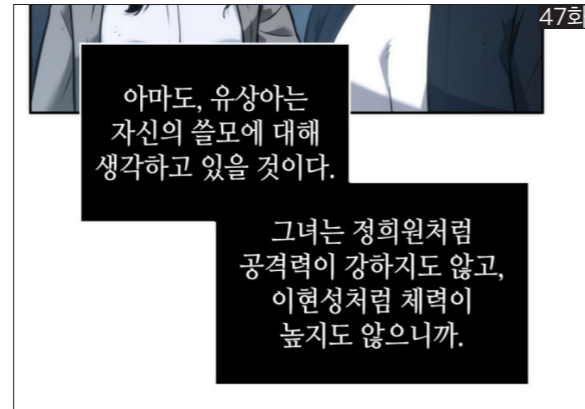
47화에서는 공격력이 가장 약한 여성 인물에게 오히려 그 인물이 가장 잘 할 수 있을만한 역할을 부여한다. 멸망 이후의 사회라는 일종의 전시 상황에서 인물들을 오로지 힘, 무력으로만 가치 판단하는 대신, 각 인물마다 개인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웹툰명 / 날짜(회차)

분석



플랫폼 / 장르 / 연령

웹툰명 / 날짜(회차)

분석



2 성차별적 웹툰 사례

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사례

가부장적 인식, 젠더 고정관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제외하였기에, 해당 사례는 전체 연령가~15세 이용가에 분포해 있다. 또한 15세 이용가라 할지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누구나 로그인 없이 웹툰을 볼 수 있다. 웹툰에서의 젠더 고정관념이 문제적인 것은, 시각화 된 콘텐츠와 서사를 통해 독자들이 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과 이를 통해 가문을 잇는 남성,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 등 성차별적 젠더 고정관념을 근거로 캐릭터를 설정한 사례를 확인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경험을 다르게 대하고, X처리를 했음에도 여성혐오적 단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장면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젠더재현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카카오페이지 순정 / 전체이용가	11/30(32화)	<p>아이를 낳아 후사를 잇는 것은 가문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후계 여부에 따라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가 정해진다.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이 반영돼 있다. 게다가 여기서는 부부임에도 여성(대공비)이 남성(대공)의 동의 없이 성적 경계를 침해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한쪽 성별과의 성적 관계와 그 존재를 단순히 후계를 낳고 가문을 잇는 역할로 축소하기에 문제적이다. 더불어 남성의 성경험이 첫 경험이라고 하자 놀라는 여자의 모습과 첫 성경험인데도 놀라지 않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남성의 모습을 통해 남성의 성적 경험과 여성의 성적 경험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성의 성경험은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여성은 순결하고 무구해야 한다는 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반영돼 있다.</p>
네이버 액션 / 15세 이용가	2/17(61화) 2/24(62화)	<p>등장인물 파브리조의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가 X녀라 그런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군, 그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비록 X처리를 했으나, X와 접미사 ‘-녀’를 결합해 여성 혐오적인 특정 단어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 상당수의 구독자들이 X녀를 ‘창녀’와 같은 맥락의 단어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브리조의 어머니는 아이가 어렸을 적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한 인물로 설정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이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성매매는 여성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드러내는 것으로 문제적이다.</p>

플랫폼 / 장르 / 연령	웹툰명 / 날짜(회차)	분석
		<p>어머니는 가끔 밤늦게 나가셔서 새벽이 돼서야 돌아오신다.</p>

② 젠더 폭력 부각 강조

일부 웹툰에서 성폭력 장면이 여성을 지배하는 서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성폭력은 불법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 묘사하여 젠더폭력을 자극적인 상황 전개的手段으로 사용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을 단지 장난으로 그리며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명백한 폭력 사건을 스토리의 전개에 등장

시키고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장면을 생략하거나, 폭력의 해결을 피해자 중심이 아닌 특정 캐릭터를 강조하데 활용하는 장면들도 눈에 띄었다. 젠더폭력의 현실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닌 재현은 그저 폭력의 재생산일 뿐이다.

성폭력을 여성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묘사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액션 / 15세 이용가	6/9(77화)	<p>탁월한 복서를 찾는 중에 '아론 타이드'라는 사람을 찾는 남성은 그에게 복서를 권유하지만 거절당한다. 이후 아론 타이드가 잠시 양해를 구해 차에 내려 성적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을 구하려고 한다. 가해자는 여성을 '장난감'이라고 칭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성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여긴다. 여기서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는군"이라며 이 상황을 관망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폭력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방관자의 모습만을 표현하는 것은 독자가 이를 가법게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아론이 해결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아론은 자신의 신체적 강함을 드러내지만, 여성은 아론의 신체적 우위를 증명하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된다. 남성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무력하게 표현되고 있다.</p>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순정 / 12세 이용가	5/17(157화)	<p>극 중 여성 등장인물이 남성 등장인물의 권유로 인터넷 방송 BJ를 하게 되고, 수입을 얻기 위해 여성에게 성적인 콘텐츠를 강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성 등장인물은 어머니를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남성의 강요대로 생활한다는 설정이다. 이어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어머니 직접 부양을 결정하자 남성은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러한 폭력 장면은 약 스무 컷에 걸쳐 길게 묘사된다. 폭행을 당하는 여성의 모습도 가슴과 몸매가 부각되어 그려지고 있다. 또한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성을 사용하며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 묘사를 통해 여성의 경제력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p>  
네이버 액션 / 전체 연령가	4/25(52화)	<p>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남성 등장인물의 괴롭힘이 폭로되는 장면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노골적으로 언급된다. "시X 계집으로 태어난게 벼슬이다. 나한테 꼬리칠땐 언제고 고새 탄놈한테 붙음." "X같은 X. 그저 그런 계집노들이 얼굴 따지는거 볼 때마다 평생 못 들고 다니게 엄산 부어버리고 싶다." 등의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남성 인물은 다른 남성에 대한 열등감을 여성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며 드러낸다. 피해자를 "몰카녀"로 낙인찍겠다는 협박하는 내용 또한 등장한다. 이 웹툰이 전체 연령가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은 모방범죄와 여성 혐오적 관점의 재생산 위험이 있기에 문제적이다.</p>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X같은 X,
그저 그런 계집노들이 얼굴 따지는거 볼때마다
평생 못들고 다니게 염산 부어버리고 싶다.

X발 개같은 부서새끼들 나한테만 일 몰뻔한다.

홍보부에 여자들이 할아주니까 X나 자기가
갈난줄 아는 새끼 하나 있다.
언제 한번 참고육 시켜준다.

진심 ㄹㅇ 능력도 X도 없는 개같은 부서 새끼들
다 죽이고 싶어.

근데 오나리는?



학교 다니는 내내
이렇게 불리게 될걸.

충현고 몰카녀로.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순정 / 12세 이용가

5/17(157화)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채를 갚기 위해 부유한 가정의 딸인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여러 회차에 걸쳐 등장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길게 그려진다. 이에 여성은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우는 모습과 같이 수동적인 자세로 그려진다. 심지어 남성에 의해 여성이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여성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며 자책한다. 이러한 묘사는 남성에 의해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을 무력한 피해자로 그려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특정한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특히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독자들이 교제 관계에서 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피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취하기보다 무력한 태도를 학습할 우려가 있다.

연주야, 오빠도 너 때리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맞을 짓 그만하고 말들어,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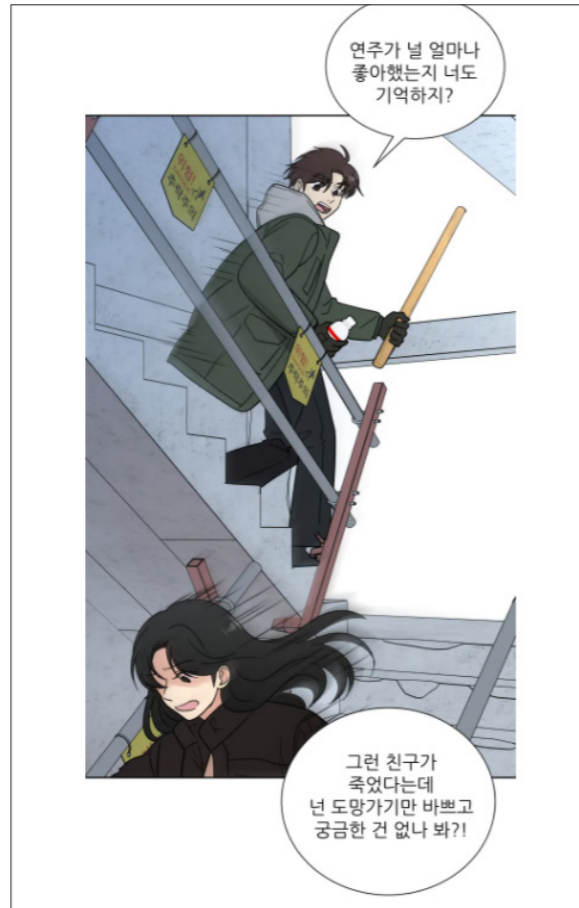
너도 정말 불이 잘 붙을지 궁금하지 않아?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 스토킹 묘사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액션 / 15세 이용가	6/9(77화)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며 협박하는 내용이 스토리의 한 축을 이루며, 한 회차 내내 여성이 남성의 스토킹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스토킹이라는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 간 관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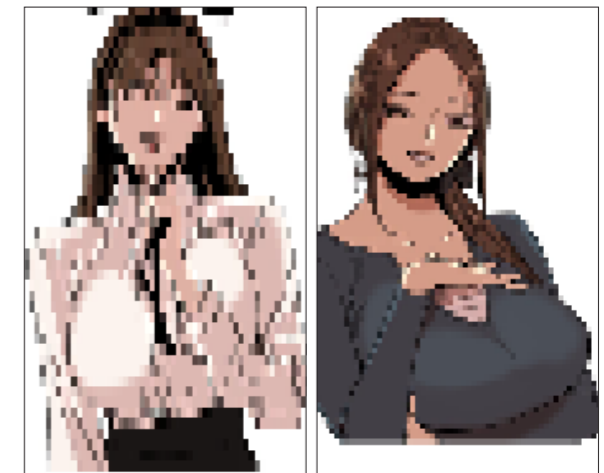
③ 성적 대상화(도구화) 양상이 드러나는 사례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다양한 매체에서 반복적이고, 주요하게 드러난다. 웹툰에서의 성적 대상화는 ‘그림’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부각하여 굴곡진 몸매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드러내고,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를 통해 특정 신체부위를 주목하게 만들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일상 / 15세 이용가	3/12(275화)	웹툰의 맥락과 무관하게 여자주인공의 가슴을 하트모양으로 만드는 포즈를 연출하며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 하고 있다.



네이버 드라마 / 15세 이용가	2/14(278화) 2/21(279화) 2/28(280화) 3/28(284화) 4/4(285화) 4/10(286화) 6/20(295화)	해당 웹툰의 매 회차 도입부에 주인공들의 일러스트가 하나씩 등장한다. 그때마다 여성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는 여성의 몸을 특정 부위에 집중해 바라보도록 하여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이다.
----------------------	---	--



네이버 드라마 / 15세 이용가	4/20(181화) 5/3(183화) 5/10(184화) 5/17(185화) 5/24(186화) 5/24(187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된다. 특히 해당 웹툰은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를 통해 특정 신체부위를 주목하게 만들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였다.
----------------------	---	---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액션 / 15세 이용가

2/15(84화)
4/19(93화)
5/10(96화)
5/17(97화)
5/31(99화)
6/7(100화)
6/21(102화)
6/28(103화)

액션 장르인 해당 웹툰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캐릭터는 모두 남성이다. 남성 캐릭터들이 전투하고 성장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동안 여성 캐릭터들은 대개 아이를 지키는 등 모성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주는 등 보조적인 역할만 맡는다. 또한 언제나 특정 신체 부위와 몸매가 부각된 모습으로 성적 대상화된다. 주인공 경호가 시이라에게 채찍으로 맞는 장면이 등장한 회차에서는 남성 캐릭터의 시선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이에 머무는 이미지가 연출되었고, 실제 댓글 창에서는 "이런 호강을...???? 개부럽다! 난 커서 경호가 될래요," "경호 저 거 일부러 갇친거지"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웹툰의 재현과 댓글을 통해서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시각이 드러난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④
외모에 따른 차별

외모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특히 여성에게 더 엄격한 미의 잣대를 들이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욕설을 섞어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괴(성형괴물) 등의 혐오적 표현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획일화된 미적 기준으로 토대로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고, 비하하는 발언은 인간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네이버
액션 / 15세 이용가

3/2(7화)
3/9(8화)

연예인 지망생인 남성 등장인물은 팬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여성 팬을 향해 "면상 빵은 ㄴ들이 지나 쫘알 쫘알대네, ㅅ발 아가리 똥내"라며 외모 비하의 의도를 담은 욕설을 내뿜는다. 다른 장면에서는 납치된 여성 다연은 남성에게 의해 외모 평가를 당한다. 이는 남성은 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 여성은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플랫폼 / 장르 / 연령

날짜(회차)

분석

[나가며]



웹툰 내용 분석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적 대상화(도구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웹툰에서의 성적 대상화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존재로 묘사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여성이 권력에 대한 보상으로, 몸과 성이 소유 가능한 것으로 객체화되어 등장할 때,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성적 대상화가 폭력과 결합하여 드러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은 폭력의 순간에도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채로 묘사되거나, 성폭력 위협에 놓인 장난감처럼 묘사된다. 웹툰 서사에 등장하는 성폭력이 그 심각성에 경각심을 주는 방식이 아닌 여성을 지배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한 지점이다. 불법 행위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폭력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웹툰을 통해 심각성이 희석된 젠더폭력 장면이 빈번하게 노출될 때, 독자뿐 아니라 창작자 역시 폭력에 점점 더 무뎠어질 수 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정의로운 해결의 장면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X녀' '쓰벌ㄴ' '쓰ㅂX' '면상 뺨은ㄴ' '미친ㄴ' 등 유독 여성을 포함시킨 욕설이 많이 등장하였다. X처리나 자음으로 욕설의 일부를 생략하였으나, 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 욕설의 일부를 X처리 하는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나, 여성 혐오가 담긴 욕설의 한두 글자를 지우는 피상적 대응에서 벗어나 용어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웹툰에서의 성차별적 젠더 재현은, 시각화 된 콘텐츠와 서사 중심인 웹툰의 특성상 독자들이 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창작자에게 섬세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보고서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웹툰의 댓글 창을 통해서도 여성 등장인물을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과 다양한 여성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자의 반응은 창작자로 하여금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웹툰의 댓글창이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는 장이 되지 않도록 플랫폼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독자 역시 성차별적 웹툰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웹툰

1. 모니터활동가:

2. 작품명:

3 웹툰 플랫폼

- ① 네이버 ② 다음웹툰 ③ 카카오페이지 ④ 네이버시리즈 ⑤ 레진코믹스

4. 장르

- ① 일상 ② 개그 ③ 판타지 ④ 액션(무협) ⑤ 드라마 ⑥ 순정 ⑦ 감성
⑧ 스릴러 ⑨ 시대극 ⑩ 스포츠 ⑪ 소년 ⑫ BL

5. 모니터링 회차 / 연재일

6. 작품의 표현 중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① 없다 ② 있다

7.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언어/이미지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① 없다 ② 있다

- 성별에 따른 성역할 구분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 군인·경찰은 남성의 직업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사·교사 직업에 더 어울린다.
가장은 남성인 것이 당연하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이 해야 한다 등
- 성역할 구분에 따라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 특정한 성별은 특정한 속성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기 때문에 성역할 구분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 여성이 배려심이 많아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 남성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한다.
여자아이는 상상하고 친절해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유리하다.

8. 성적 대상화(도구화) 양상이 드러나는 언어/이미지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① 없다 ② 있다

- 신체의 일부 지칭어를 통해 여성 또는 남성을 표현
- 한 성별이 다른 성별의 성욕을 위해 존재한다고 표현
- 여성 또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
예)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다. 여성이 강간을 좋아한다
- 성희롱,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
- 여성 또는 남성과 관련된 성적 표현 중 기타

9.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부각/강조한 언어/이미지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① 없다 ② 있다

-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강조
- 피해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
- 피해자인 여성을 무력하게 묘사
- 성폭력을 여성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묘사
-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희화화

10. 외모에 따른 차별을 드러내는 언어/이미지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① 없다 ② 있다

외모에 따른 차별이란 외모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외모가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임. 여성/남성의 특성을 외모만으로 축소시키는 것, 외모를 기준으로 비하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대한 다양성 가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함.

11. 성차별적 멸시/모욕/위협 등을 위해 특정한 종류의 비하/차별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 특정한 종류의 혐오표현 - 인터넷 밈(meme)으로써 확정되어 널리 공유되거나, 소규모 커뮤니티 혹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활용되는 혐오차별을 위한 용어

12. 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웹툰제목	플랫폼	장르	연재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2) 성차별적 내용

성차별 유형	웹툰제목	플랫폼	장르	연재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젠더(성별) 고정관념						
성적대상화						
젠더기반폭력						
외모에 대한 평가						
특정종류의 비하/차별표현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3)

웹툰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